

제시문(가)와 (나),(다)는 새로움이 부상할때 그것을 거부해야하는지에대한 생각이 다르다.
(가)는 바람직한 대중은 새로움을 거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가)의 그리스인들과 남유럽인들은 새로운 종교를 수용하지 않는다.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내부에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비해 천편일률적인 북유럽인들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보편적,절대적으로 받아들인다.이는 그들의 수준이 저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제시문 (가)가 새로움이 부상할때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을 알 수 있는 근거이다.제시문 (가)와달리 (나)(다)는 새로움이 수용된 이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나)는 예술사에 있어서 비연속의 연속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나)의 아류는 새로움이 등장할때 거부하지 않는다.아류는 걸작과 걸작을 매개한다.이과정에서 아류는 걸작을 모독하지만 그 뒤에는 걸작에 대한 존경이 숨어있다. 모독을 통해 존경에 이르는 것은 종교에서도 잘나타는 현상이다.즉 (나)의 새로움인 걸작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알수있다. (다)는 사람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과정을 역사에 적용시키고 있다. 인간은 집단적인 성찰을 통해 진보를 한다.이런 진보는 대체와 축적을 통해 발생되고 이 과정을 통해 발생한 논리적인 투쟁과 결합을 우리가 채택하고 받아들여것을 역사의 사건을 설명하는데 이용한다고 주장한다.이는(다)가 새로움을 수용한다고 주장하는것을 알수있는 근거이다
제시문 (나)와 (다)는 새로움의 다수의 역할에 대한 견해에 차이를 보인다.(나)의 다수가 새로움과 새로움을 매개하는 역할에 머무른다고 생각한다. 다수는 걸작을 모방하고자 하나 걸작으로 나아가지 못한다.하지만 이런 모방하고자 하는 행위는 걸작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준다.그에비해 (다)는 새로움이 등장할때 새로움을 매개하는 역할에서 머무르는것을 넘어서 다수가 새로움의 창안자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지워지는 반복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듯이 역사에서도 집단적인 성찰을 통해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고 한다.